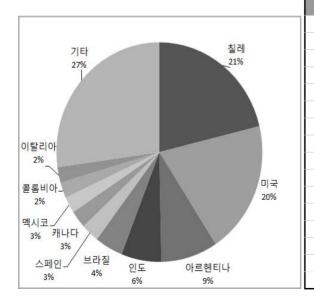
## KiEP 동향세미나

## 칠레의 스타트업 지원 정책(Start-up Chile) 내용과 시사점

- 칠레에서 국가혁신정책 중 하나로 2010년부터 시작된 창업 기업들을 지원하는 '스타트업 칠레 (Start-up Chile)' 프로그램이 주목받고 있음.
  - 스타트업 칠레는 국적에 관계없이 창업 기간 2년 이내의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으로, 미국의 실리콘벨리를 벤치마킹하여 탄생함.
  - 이 프로그램에 선발되면 창업 자금 2,000만 페소(약 3만 달러)와 각종 제반 혜택()을 제공받게 되며, 정부가 지원금에 대한 지분을 요구하지 않다는 점이 특징적임.
    - ㅇ 이러한 혜택의 반대급부로 참가자들은 6개월간 칠레에 체류하며 현지 강연이나 워크숍 등에 참여해야함.
  - 이 프로그램은 1년 동안 3번에 걸쳐 약 300개 기업을 선발하며, 2015년 7월까지 75개국 출신의 1,052개 기업을 지원하였음.
    - o 국별로는 칠레(21%)와 미국(20%)이 가장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으며, 스타트업들의 산업은 IT&소프트웨어(18.1%), 전자상거래(16.1%)가 높은 비중을 차지함.

그림 1. 스타트업 칠레 참여자들의 국적별 구성

표 1. 스타트업 칠레 지원 산업별 구성



산업	비중(%)
IT&소프트웨어	18.1
전자상거래	16.1
소셜미디어/네트워크	8.5
모바일&무선통신	8.5
교육	7.9
헬스케어&바이오테크놀로지	6.3
사회적 기업	5
에너지	4.5
급용	2.9
관광	2.8
미디어	2.4
천연자원: 광업, 식품, 목재 등	2
미디어 및 광고	1.5
게임	0.6
컨설팅	0.2
기타	12.5

자료: 주한칠레대사관. 2015. 중남미 창업진출 활성화 패널 토의 자료. 중소기업진흥청

<sup>1)</sup> 멘토링 서비스, 인프라 지원, 투자자나 현지 기업들과의 네트워킹, 워킹비자 발급 혜택을 부여함.

## KiEP 동향세미나

- 스타트업 칠레는 국내 창업 문화를 전파하는 것이 1차 목적이며,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제 혁신을 도모하고, 칠레를 중남미 지역의 창업 허브로 만드는 것이 목표임.
  - 구리에 대한 국가경제의 높은 의존도로 인해 외부경제상황에 대한 취약성을 가지고 있던 칠레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면서 스타트업에 주목하게 되었음.
  - 현재 세계에서 역량 있는 창업가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들이 칠레 사회 내에서 교류하며 창업 문화를 전파하는 것만으로도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는 평을 받음.
  - 페루, 브라질, 자메이카와 같은 중남미 국가들에서부터 말레이시아(MaGIC)에 이르기까지 세계 적으로 칠레의 스타트업 프로그램을 벤치마킹 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.
  - 올해부터는 프로그램을 이수한 스타트업 중 칠레에 정착해 사업을 이어나가기를 원하는 경우에 한해 사업 확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(Start-up Chile Scale Program)<sup>2)</sup>을 신설하여 지원주기를 확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.
- 현재 스타트업 칠레 프로그램은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 미진, 벤처 캐피탈의 부족, 프로젝트 수의 절대적 부족, 혁신의 파급효과 흡수 역량 부족 등의 과제를 안고 있음.
  - 프로그램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, 일부 '먹튀' 스타트업들에 대한 문제도 프로그램의 한계로 제기되고 있음.
    - o 한편 스타트업들의 M&A, 상장 등 중간성과가 잘 포착되지 않는 점은 투자시장의 미성숙 문제로 지적되기도 함.
  - 프로그램 대부분이 공공기관인 생산 진흥청(CORFO)의 자금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고, 벤처 캐피탈과 엔젤 투자자와 같은 민간부문 투자는 미흡한 상황임.
  - 국내 혁신활동이 미흡한 상황에서 절대적인 창업 기업 수 확대 차원에서 외국인들의 스타트업 설립을 지원하는 점은 긍정적 시도로 평가됨.
  - 그러나 칠레의 산업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러한 혁신 활동이 지역 경제와 활발히 연결되지 못하고 있고, 이를 흡수할 수 있는 역량 자체가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음.

<sup>2)</sup> 스케일 프로그램의 지원금은 6,000만 페소로 약 10만 달러임.

자료 : Start-up Chile, 각종 언론 자료, 출장 면담 자료

이시은 (KIEP 구미유라시아실 미주팀 연구원)

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,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세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 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. 본 동향세미나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.